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 뉴스데이

newsday.or.kr

사랑과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인력'



031-759-5588

제42호 | 발행일 : 2009. 12 1.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

### INDEX

0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3면
0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창업성공의 파수꾼’	4면
0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7명 선정	5면
0 성남시 충청향우회,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 추대	7면
0 “대통합은 과거 광주 정신세계로 통합하는 것”	8~9면
0 ‘준비된 창업’ 이 성공창업의 지름길	10면
0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찬·반 엇갈려’	11면
0 “기업과 대학의 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	14면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정치후원금!**  
바른 정치를 위한  
깨끗한 후원금입니다

**정치후원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인터넷으로 쉽게: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숫자 539(5-3-9) + 통신사 인터넷 접속기(011-1111-5399)
- 제휴카드로 편리하게: 신용카드 포인트기부(정치자금기부센터에서 신한, 비씨, 국민, 신한 등 4개사 가능)
- 대한민국국회 의원광장: www.assembly.go.kr 에서 후원

정치후원금 후원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액에 따라 1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

입력항목: 정치후원금 을 쳐 보세요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통해 후원금을 후원하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자금기부센터 홈페이지 참조)



#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 할 것”

### 광주시, 설계대행업소 간담회...민원처리 역량 강화

광주시는 민원처리의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을 위해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설계대행업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하근 건설도시국장을 비롯, 인허가 관계 공무원, 관내 건축사무소 및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직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정 국장은 최근 다녀온 광주시의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금품·향응제공 사예 근절, 부조리방지 및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반려·보완·취하 등 민원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인 민원처리를

향상을 위해 업무관계자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설계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제를 도입,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으로 민원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하남·광주 역사자료 갖고 오세요

### 하남역사박물관, 오는 29일까지 유물 구입

하남시는 유물구입 공고를 내고 하남·광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화재를 구입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구입하는 유물은 산수화, 민화, 문인화, 기록화 등의 회화류나 1970년대 이전 광주와 관련된 지도, 근·현대 생활사 자료 등이다.

또한 유길준, 유진오, 최찬식, 최인규 등 하남에서 배출된 과거 인물과 관련된 유물도 포함된다. 유물매도 참가자격은 개인 소장 또는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이며 1인당 출품수는 15점 이내로 한정되

고, 도골품 및 도난품 등의 불법유물은 매도에 참여할 수 없다.

구입유물 선정 및 가격평가는 하남역사박물관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감정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도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유물매도신청서와 유물 칼라사진 2매,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하남역사박물관에 신청하면 된다.

# “잘 익은벼, 농민께 감사”

### 광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2만1천포

광주시는 2009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11일 개시했다.

첫 수매가 실시된 퇴촌면 도수리수매장에는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조역동 시장, 장용범 시의원, 농협중앙회 광주시 지부장 등 각계 인사들이 방문, 올해 바 작황과 매입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조곡 포대를 운반하는 등 일손을 도왔으며,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농정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공원개발과, 사회위생과, 퇴촌면사무소 직원들도 수매현장을 방문, 조곡 포대를 운반하며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도왔다.

날짜별 매입계획량은 11일 퇴촌면(도수리수매장) 3,000포 ▲13일 남종면(분리수매장) 3,000포 ▲16일 실촌읍(만선리수매장) 3,000포 ▲17일 오포읍·초월읍(매산리공설운동장수매장) 3,000포 ▲18일 도척면(유정리수매장) 2,650포 ▲20일 동지역(장자동수매장) 2,701포 ▲23일 퇴촌면·남종면·중부면(도수리수매장) 3,000포 ▲24일 전체읍면동(도수리수매장) 1,049포 등 21,400포이다.

올해 수매품종은 추정, 대안, 일품 등 3종으로 40kg 조곡의 선급금은 특등급 50,630원, 1등급 49,020원, 2등급 46,840원, 3등급 41,690원이다.



# 광주시, 예산에 주민의견 반영하기로

광주시는 새해 예산 편성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조역동 시장은 3일 오포읍을 시작으로 광남동, 송정동, 남종면을 방문, 내년도 시정 실현이 계획된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했다. 조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의 장은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광주 건설’ 시민의 뜻 담아

### 조역동 광주시장, 주요사업 현장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조역동 광주시장은 각종 안 전사고를 대비하고 시민과 밀접한 주요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내 대형사업장과 시민편의시설을 방문, 시공·진행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지난달 28일 조 시장은 실촌읍 곤지암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곤지암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곤지암천 수해복구사업’은 실촌읍 연곡리 일대 곤지암천에 식생블럭 설치, 자연석쌓기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쌍령동~실촌읍 곤지암리에 이르는 곤지암천 13.4km 구간에 생태탐방로,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0년 12월 준공되면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곤지암 근린공원 주차



장 조성공사’는 실촌읍 곤지암리에 주차장 3,941㎡(85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29일에는 오포읍 양벌소공원 조성공사와 태전~목동간 도로공사현장을 살폈다.

‘양벌소공원 조성공사’는 오포읍 양벌리에 산책로, 쉼터,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과 야생초화원, 소나무식 등 15종의 수목을 식재해 1,985㎡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태전~목동간 도로

공사는 도로폭이 협소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도 9호선 3km 구간을 내년 12월 까지 너비 10.5m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30일에는 광주농협~문화원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경안근린공원, 광주시 자전거공원의 관리실태를 살폈다.

‘광주농협~문화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514m, 너비 12m의 도로를 개설, 시가지내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파워인터뷰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

#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 “일자리 창출이 복지”

### 고도제한 · 재개발 해법 찾기 총력



신종플루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성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 출신 새선국회의원으로 최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보건과 노동 현안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신상진 국회의원을 만나 현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 최근 근황은.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당에서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신종플루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요즘의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문제 등 보건복지 분야인 노동, 환경, 여성, 그리고 조부순 사건 같은 어린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휴가도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 ▶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신종플루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신종플루 정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중요하고 근로기간이 2년이 돼 사업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에 가깝게 대우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줄이는 등 노동정책을 펴 나기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가 사회적인 큰 현안인데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노총을 비롯

한 노동계와 경총 등 경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추석 이후로 신종플루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대우행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1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주도의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했다.

이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와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1월 4일부터 심각단계로 격상,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 학생에 대해 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의료종사자는 이미 완료됐으며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고령자, 일반인 순서로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30% 이상이 접종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는 충분히 걱정이 정부에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 ▶ 유권자에 대한 공약 이행은.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가 큰 현안이며 또한 재개발 추진 문제 그리고 공약 중 성남에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이 있다. 주민들의 휴식, 운동 공간이 부족해 성남동 종합운동장에 600억 이상 투자해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 실무 책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해서 국비가 100억 이상 들어오는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란에서 하대원을 거쳐 공단, 사기막골, 은행동쪽으로 가는 순환경전철이 올해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해 용역발주 해 노면전차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 ▶ 고도제한 완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국방부에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줘서 현재 고도제한 45m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해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국방부장관하고도 협의를 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노력을 해서 이미 국방부에서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1월초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온다. 현재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건데 현행 45m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시에 대한 견해는...

통합시는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틀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를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성남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전제이다.

▶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안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갖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성남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이뤄지는 선거이므로 정치적, 이념적인 것 보다는 동네의 주민과 함께 하고 동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선택돼야 한다. 동네일꾼이 당의 후보가 되고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를 해서 좋은 분들을 공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 최근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성남지역 관련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다듬고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주민에 맞게 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성남시를 떠나지 않게 이주대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성남 재개발 이주단지들 마련할 수 있게 정부와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그리고 중원구의 성남공단이 교통 소외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활성화 시켜 성남의 지역경제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한 과제이다. 국가적으로는 신종플루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해 이번에 보건복지체계가 선진화 되고 국민들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복지체계가 되도록 대비할 것이다. 비정규직 등 일자리 안정, 청년일자리 문제 등을 신경써 일자리가 곧 복지다 라는 말처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

####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이 시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정치인들을 선거 때 잘 판단하고 잘 뽑으시고 또 지역사회의 함께 주민의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한다면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 신상진 의원 주요 프로필

- 서울의대 졸업 / 인권상 수상
- 17.18대 국회의원 (한.성남중원)
- 대한의사회회장(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국회 민생정치 연구회 대표의원

#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창업성공의 파수꾼'

## 산학협력단 연구 인프라 지원... 실질적 성공기업으로 발돋움



지난달 확장개소하고 예비창업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경기대 창업보육센터'는 일반창업의 성공률인 30%대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70%대의 창업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1년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3층 규모의 독립건물을 신축하고 이어 2008년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26일 4개층을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원 외에 22억

### 창업성공률 70%대 달성... 창업보육센터 확장 개소 지역경제 · 일자리 창출 · 우수 인프라 구축 등 기여

원 이상의 교비를 투자, 창업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경기대 산학협력단의 지역특성화 분야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연구센터'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연계된 우수 창업기업을 유치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주도적

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선택했다.

"창업자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대학 내 기술을 산업화 하는 등 명품 창업보육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산학협력단은 밝히고 있다.

지난 1차 입주자 모집에서 23개

예비창업자가 지원했음에도 11개 업체만 선정된 것은 경기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인프라에 맞는 창업자들이 엄격히 선별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다.

경기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기본 3년, 최대 5년간 기기분석센터, 비즈니스리운지, 세미나실, 회의실 등이 지원되며 입주자와의 교류는 물론 산학공동 연구도 가능하게 된다. 입주공간 지원부터 경영기술, 마케팅 등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 지립화단계에 이르게 된다.

입주자 졸업 후에도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교류회를 비롯해 1개월에서 1년간 지원이 잇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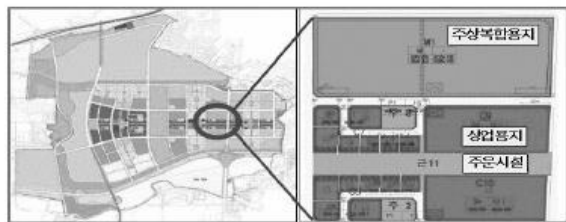
한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개발과 산업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995년 산학협력지원센터로 시작한 경기대 산학협력단(단장 홍성창)은 다수의 센터 및 사업단을 보유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는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연구센터, 산업기술보호특화센터, 기기분석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역특성화사업단, 다문화교육센터가 있다.

또, 특성화사업단에는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특성화사업단, 생물자원보존특성화사업단, 디지털비즈니스교육특성화사업단이 있다.

## '최고의 요지' 청라지구 주상복합용지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달 1일 접수받아 경쟁입찰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청라지구 중심지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 1필지를 12월 말에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는 청라지구 주상복합용지 중 입지여건이 가장 양호한 M1블럭으로, 부지면적 69,205㎡, 공급예정가격 201,724백만원으로 일반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 12월 청라지구내 주상복합용

지 3필지를 롯데건설 외 2개 업체에 경쟁입찰로 매각하였으며, 그중 2필지는 성황리에 분양을 마감하여 아파트 분양을 기차수 하였다.

청라지구의 랜드마크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차별화된 외관과 최고 50층을 넘나드는 초고층, 주거와 업무 및 상업 시설을 두루 갖춘 편리한 주거여건,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내부 설계로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였다.

청라지구는 수도권에서 각

광범은 인가지역으로 지난달 3개 건설사 동시분양 결과 1순위 평균 2.89대 1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건설사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진행돼 청라C가 개통되면 서울 도심 접근성이 한층 수월해지고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항로 및 인천항을 기점으로 연계되며 지구의 남북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공급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일 신청접수·입찰실시, 12월 2일 개찰, 12월 10일 계약체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광고, 비즈니스파크 사업설명회

### 민간업체 자율성 부여 등 논의

150여개 업체 200여명 참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광고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 설명회가 16일 오후 수원 이의동 소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와 금융사 등 150여개 업체 200여명이 참석을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는 민간업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기업 분·지사 33,000㎡ 의무 유치 및 외국기업 유치 가점과 같은 규제 완화내용과 사업기간 및 토지비 납부 등 구체적인 공모지침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사업자의 부담

을 줄인 안정적인 공모내용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다.

최근 PF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 컨소시엄의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배점도 강화시킨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부동산 금융시장 위축으로 유찰된 후 수도권 남부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이라는 광고신도시 당초사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재공모를 추진한 것이다.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대표사는 금년 12월18일 당일엔 사전 응모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신청은 오는 2010년 2월 24일이다.



좌측부터 박병욱, 정종태, 김영귀, 문광연, 김덕상, 이의용, 임화섭 대표.

#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7명 선정

## 지역경제 발전 기여한 박병욱 제노레이 대표 등 확정

성남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여온 중소기업인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1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는 박병욱 대표(47. (주) 제노레이)가 선정됐다.

또 우수상 수상자는 정종태 대표(46. (주)이노와이어리스)와 김영귀 대표(57. KYK 김영귀환원수(주)) 등 2명이 선정됐다.

또 장려상 수상자는 문광연 대표(49. (주)다산씨앤에스), 김덕상 대표(45. 씨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주)), 이의용 대표(55. (주)창성에이스산업), 임화섭 대표(45. 가온미디어

(주) 등 4명이 각각 선정됐다. 성남시가 이번에 처음 실시한 이번 제1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후보자에는 총 35개 업체 대표가 추천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업체별 수출 실적과 생산 매출액의 성장률, 기업의 건실도, 기술 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이같이 7명의 우수중소기업체 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병욱 (주)제노레이 대표는 고화질 영상 의료기기를 생산

하는 업체 대표로서 의료용·치과용 디지털 영상장비의 혁신을 이뤄내 치과용 포터블 엑스레이로 진료환경을 개혁하고 C-Arm과 Mammography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대표 7명은 성남시장의 상패를 수여받게 되며, 성남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 “박물관·미술관 뿌리 내리기 앞장설것”

## 한국박물관협회장에 전보삼 회장 취임

한국박물관협회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5대 회장인 배기동 현 회장이 전통문화학교 총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공석이 된 6대 회장에 전보삼 민해기념관장을 만장 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전보삼 회장은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국 5백여개의 박물관·미술관을 이끌게 될 문화수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당면 과제는 통합과 화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사를 한 전보삼 교수는 만해와 인연을 맺어 평생 박물관인으로 살아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박물관의 박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은 박물관인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한국의 박물관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배기동 전회장을 비롯해 1백여명의 박물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배기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장을 맡으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음점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협회장을 맡아 열사봉공의 자세로 직분을 수행해 왔다면서 박물관협회의

# 멀티미디어·이동통신... 미래연구 한걸음 더

## 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인터넷 대상 개인공로상 수상



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주최의 '제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에서 개인 공로상을 수상했다.

최 원장은 미래인터넷포럼 설립을 통해 미래인터넷 연구 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멀티미디어통신, 이동통신 연구에 기여한 바가 인정돼 이번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원장은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고 프랑스 CNET 연구소, 미국 IBM 왓슨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친 뒤 현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미래인터넷포럼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DDxS 사태 해결에 기여한 안철수 연구소가 인터넷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은 인터넷기업 관련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비즈니스와 사회진흥, 기술선도 부문에 공헌한 기업이나 개인들의 모범 사례를 발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제도다.



## 정기영 시의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이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복지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 최윤희 교수 초청 '희망의 흥련을 날려라' 특강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이법택)이 임원 및 직원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중원구상대원동 513-14번지 사곡스타워 908호에서 개최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회원사에 근무하시는 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최윤희 교수의 '희망의 흥련을 날려라!' 라는 주제의 특강을 준비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업체는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18일까지 관리공단 업무과(FAX:749-9643, 749-9645)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할 수 있는 기업체 임원과 직원은 선착순 70명이다.

류수남 칼럼

# 김유석은 몽니인가? 의정의 반성인가?

김유석은 몽니인가. 의정의 반성인가. 몽니라면 명분이 없다. 그리고 의정의 반성이라면 방법이 틀렸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수정구 태평동 청백리길 청사에서 중원구 여수동 새청사로 이사해 업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급년 시정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2009 행정감사와 2010 곳간 예산도 새 청사에서 하게 됐다. 여수동의 새 청사는 건축비 3천2백여 억원 이상을 들여 건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건물규모나 건축비가 제일 많아 호화 청사라는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다.

질타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새청사 9층에 마련된 시장실은 아방공이나 한국판 베르사이유 궁전이나 하는 부끄러운 이름표가 붙어 있다. 이런 비판 속에 의회 2층에 마련된 의정실은 정면중간에 기둥으로 가려져 휴게실이나 어린이들의 놀이집 같은 분위기로 베르사이유 궁전 같다는 시장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리고 공개의정을 강조하고 있는 본회의장의 구조는 취재진이나 방청객은 사회자인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사무국장과 의사팀장의 얼굴만 볼 수 있게 시설됐다. 그리고 의원들이 앉아 의정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게 꾸며 놔 숨겨진 회의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설상가상으로 35명 전체 의원들에게 개인사무실까지 만들어줘 돈 먹는 하마청사라는 이름표까지 달면서 비판의 소리는 하늘을 찌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유석 부의장이 청사건립과 이사에 따른 불만 그리고 청사 내 의원들의 개인 사무실 배정에 따른 불만을 품고 입

주를 거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와 동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들어있던 청사로 이사 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배치를 못하고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자 전전공공하고 있다. 김유석의 이사거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나 장기화 될 경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공단측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버팀을 짚을 김유석의 명분과 시기도 궁금하다. 김유석의 의정활동은 그동안 거침없는 소신외정을 했다. 그래서 박수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번 행위는 이해가 안 된다. 김유석은 새 청사에 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새청사의 이사 일정도 집행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어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성남에는 시장홍보용 언론만 있고 시사비비를 가리며 비판하는 언론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행위가 집행부와 의회가 반성의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새 청사 쪽에서 하려(鬭爭)했는데 사무국직원들의 고통을 감안해 구청사에 남았다고 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사무국과 사전협약이 있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집행부는 강자의 횡포요 의회는 약자의 설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유석에게는 부의장이라는 직위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연간 수천만원씩을 받는 의원들 조직의 수준과 순수성에 문제가 있다. 또 존재의 가치도

없다. 이 정도면 비판할 가치가 없다. 이는 마치 이대엽시장이 지난 8월19일 깜짝 발표한 광주 하남 성남시 등 3개시통합에 따른 의회의 자료요구에 송영건 부시장과 이정도 과장의 답변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성남시정과 의정의 수준이요 공직자들의 사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에게는 실망과 자괴감만 안겨주고 지역과 조직은 혼란자들이 과연 성남사회에 필요하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선출직들은 장대훈의 주장처럼 선거를 통해 냉혹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반면공직자들은 무능함과 비굴함이 없었는지 자기반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비판은 때로는 전부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인정이라는 분도위에 부족을 채우라는 애정의 회초리(分子)다. 그런데 이쯤 되면 회초리를 들을 가치가 없다. 어느 사회단체장의 말처럼 의회는 해산하고 의원들은 그동안 받은 연봉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김유석의 겸손과 조직의 자성을 바라는 대목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성남에는 언론이 없다는 대목에는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김유석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과변에 불과하다. 몽니라면 속히 접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의정의 반성이라면 이는 방법을 바꿔 부의장이라는 직위를 걸고 공인답게 방을 비워줘 공단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품격 있게 적법한 방법이나 장소를 찾아서 알리(鬭爭)는 것이 옳다.



의정이라는 이름이나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보호막(?)으로 위장해 주위에 피해나 괴로움을 줘서는 안 된다. 이는 김 부의장은 물론 의회나 지역에 혼란만 야기된다. 이 지역에 영일(寧日)이 없는 것은 오기와 감정을 앞세운 시,의정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김 부의장은 지금부터라도 구청사에 남아 주위에 지장을 주기보다는 새청사로 들어가 잘못을 시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배지나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불태우는 희생(犧牲)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때만이 성남시 의정 사는 김유석의 진심이 기록될 것이다. 지금은 김유석의 진심을 알려하지 않는다. 이는 김유석의 진심의정과는 달리 정치적인 소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은 어둠할 것이다. 주민들은 정치꾼들의 쇼에 질려있다. 성남의 선출직들 중에는 어느 통산사의 광고모델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란다. 쇼를 하라 쇼를 해! 쇼를 하면 세상이 보인다. 이는 어느 통산회사의 홍보일 뿐이다.

의정이나 시정을 쇼로 하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퇴보(退步)요 돌아오는 것은 저주(詛呪)뿐이다. 이는 김유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선출직들은 명심했으면 한다. 그리고 김유석은 자막집중(子莫執中)한 의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 이종덕 성남아트센터 사장, 보관문화훈장 수상

### 문화의날 기념식서 수훈... 예술경영 40년 유공

이종덕 성남아트센터 사장이 10월 '문화의 날'을 맞아 정부가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이종덕 사장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사장을 맡아 이들 공연장을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공연장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곳곳의 문화예술회관이 참여하는 전국문화회관연합회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트센터연합회를 창립, 문화예술의 교류와 발전을 촉진했다.

또한 지난 9월 제주에서 열린 제3회 세계텔레비전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이 문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문화예술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덕 사장은 또 서울예술단을 재단법인으로 독립법인화 발전의 초석을 다졌고, 성남아트센터 사장을 맡아 세계적 수준의 공연·전시물을 기획하고 유치하

여 문화예술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사랑방문화클럽',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 선도적 문화정책사업을 입안하고 실천, 이러한 성남 발 문화정책사업을 문화관광부가 모범적 사례로 선정,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종덕 사장은 그동안 '대통령 공로표창'(1980), '국민훈장 목련장'(1988), '보국훈장 삼일장'(1981), '육관문화훈장'(1994) '석주미술상'(2007) '올해의 미술인상'(2008) 등을 수상했다.

또 루마니아정부로부터 '루마니아문화상'(2000), 세네갈정부로부터 'officier de l'ordre Merite'(1979) 등을 수상했다.

## 김봉한 대표이사,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우량 벤처기업발굴·육성성과

성남산업진흥재단 김봉한 대표이사가 국내 벤처업계 최대 행사인 '벤처코리아 2009'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르네상스를 열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는 우량 벤처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벤처기업 활성화는 물론 창업기업의 의지를 높여 벤처강국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재단을 맡아 관내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국내외 마케팅 지원, 지역전략산업선정 등 우수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벤처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 선진미래 성남포럼 '출항'

## 최만순씨 상임대표 선임... 지역사회 발전 방향 모색할 터



'선진미래 성남포럼'(상임 공동대표 최만순)이 3일 상공 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만순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모임에서 "성남시민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자"며 "미약한

시작이지만 적극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주기적인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구별, 직능별 대표들도 앞으로 성남포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최만순 바르게살기운동성남협의회 회장을 비롯 정완립 전생활체육협회회장, 김두일 전 시의원, 조문선씨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정관심의, 조직확대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타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발기인들은 보름에 1회 초찬모임을 갖고 논의를 거쳐 1월 중순 총회 개최할 예정이다.



## 장학금 5천여만원 '쾌적'

### 성일고 후배사랑 '1인 1구좌 운동'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일고등학교(교장 성춘희)를 졸업한 동문들이 매년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10년이 넘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성일고 졸업생들의 모임인 성일고 총동문화(회장 임호영)에서는 지난 95년 처음 총동문화가 결성된 뒤, 이후 97년 4명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후배 사랑이 시작됐다. 이후 선배들은 매년 액수를 늘려 2003년에는 2천776만 원, 2004년 2천961만 원, 2005년에는 1년에 3천여만 만 원이 넘는 액수를 전달했다.

이후 성일고 졸업생들은 총동문화 차원의 장학금 전달을 탈피, 2006년부터는 장학위원회(초대 김운태 위원장)를 구성해 졸업생 1인이 1구좌(187만 원) 형식으로 후배 장학금 조성으로 지난해는 5천234만4천 원이라는

거액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쾌적했다.

또 올해는 새롭게 구성된 총동문화 소속 장학위원회(이재영 위원장·백현동장)가 학기 초에 이어 지난 9일 모교에서 성일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 5명, 성일고는 성적 우수 학생 16명을 비롯해 동문 자녀 7명 등 총 2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영 위원장(2회 졸업생)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행동을 실천하는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모교의 이름을 우뚝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명문고교로 발전하기 위해 학교, 학생, 동문, 그리고 각 가정이 혼연일체로 열정을 다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성일고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성남시 자산 전국 지자체중 '최고'

## 행정안전부 분석결과 순자산 16조7965억원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246개 지자체의 자산·부채 등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재무보고서' 분석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성남시 자산 총계는 16조8534억원으로 부채 569억원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16조7965억원인 것으로 집계

됐다. 두 번째 지자체는 고양시로 자산 총계 14조8천115억원에 부채 2천846억원, 14조5천269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수원시가 자산총계 10조4천383억원, 부채3천327억원, 순자산 10조 1천56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 성남시의 총수익은 1조4661억원이고, 총비용은 1조14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3226억원의 운영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익계정은 자체조달 수익이 79.5%인 1조168억원이 고 정무이전수익은 20.4%인 298억원, 0.1%의 기타 수익은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성남시는 자체 조달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앞으로도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공개 등으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앞으로도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공개 등으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찾아가는 이동경찰서' 호평

## 청솔마을사회복지관 방문 법률상담서비스제공

분당경찰서(서장 송갑수)는 13일 오전 분당구 정자동 청솔마을 6단지 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이동경찰서'를 운영했다.

이날 이동경찰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희망올타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고소·고발 상담 및 학교주변 납치 성폭행 등 각종 범죄피해 예방 홍보와 컴퓨터

수리, 알코올 상담 등을 실시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마스크도 배부했다.

이날 송 서장은 "몸이 불편하거나 생계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직접 방문해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동경찰서 운영 취지"라고 밝혔다.



# "총청의 정체성 세우겠다"

## 성남시 총청향우회,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 추대

성남시 총청향우회(회장 손국배)는 12일 오후 7시 신홍3동 프린스웨딩뷔페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양인권 전 성남시 부시장을 제20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양인권 신임회장은 수락인사에서 "총청향우인과 성남시, 고향을 위해 서로 단합하고 결속해서 총청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양인권 신임회장은 "총청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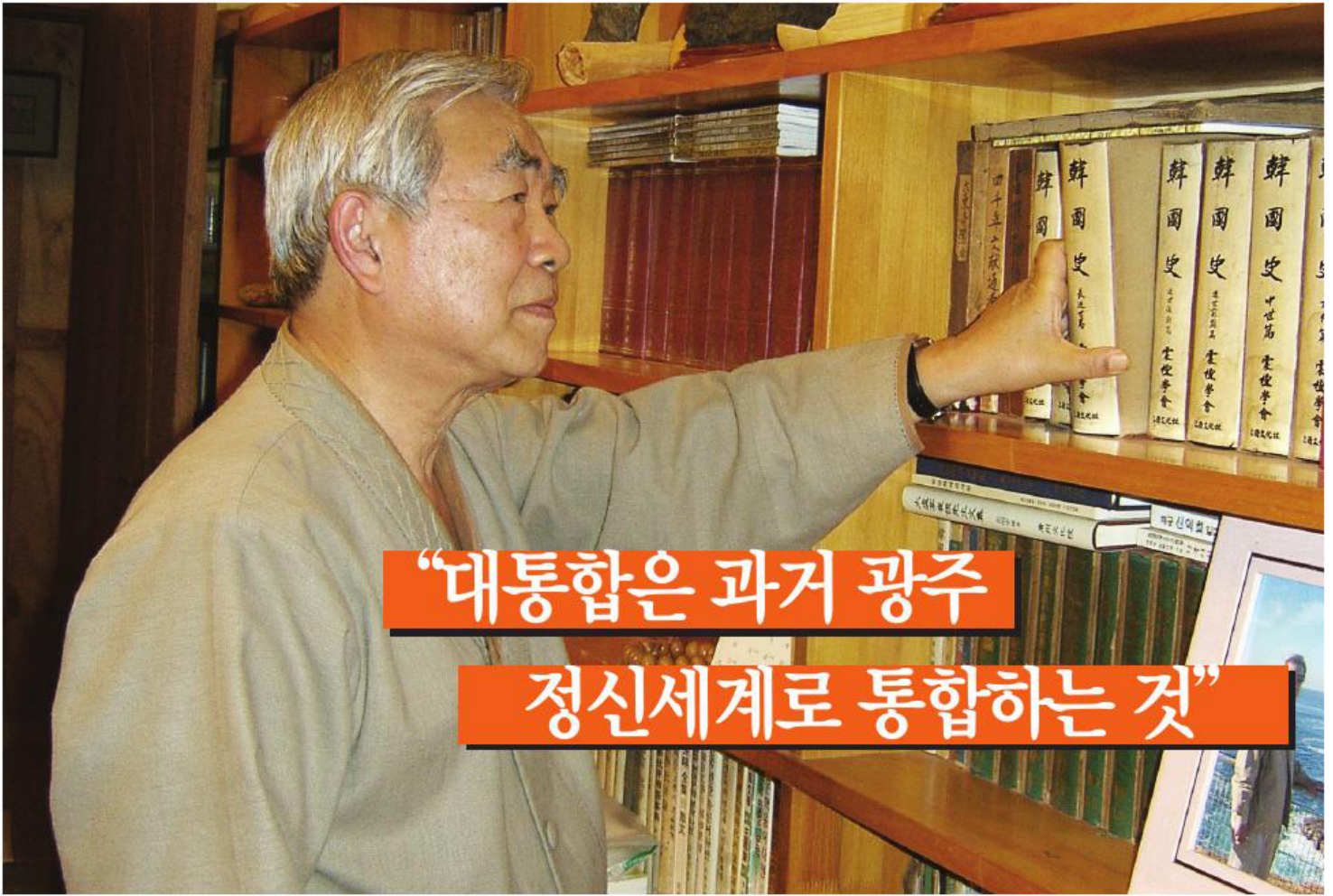
묵히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결속하면 더 크고 위대한 힘이 발휘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총청인이 돼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인사했다.

총청향우회 제18, 19대 순국배 회장은 인사말에서 "돌이켜보면 4년 전에 막중한 성남시 총청향우회 회장으로 추천 추대해 주셔서 고 짐을 맡을 때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능력이 열통하고 사회경력이 출중하신 새로운 임관을 총청향우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선출하는 오늘의 대의원총회를 맞이해 감개무량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양인권 총청향우회 부회장의 회장 추대는 총청향우회 제20대 회장 임후보 결과 양인권 부회장 1명의 후보만 등록해 지난 4일 14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12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양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실시됐다.



**“대통합은 과거 광주 정신세계로 통합하는 것”**

정내하의 주간 인물 리뷰

**박 광 의** 행정구역 통합 광주시민 추진위 수석대표

경기 광주는 전통적으로 지성인들을 많이 배출해 낸 땅이다. 장약용등 실학의 거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훈구파의 묵은 짓간로 폭 절인 조선 세상에 실학이라는 성성한 대안을 던진 광주이다. 또한 해공 신익희선생 같은 걸출한 민주주의 사상가를 키워낸 민주주의의 자궁이다. 조선시대 학문의 사생어인 서학(천주교)을 풀어준 천진암이 있는 광주는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광주는 정신이요 사상이다! 그런 전통의 맥을 잇고 지식과 덕, 그리고 열정을 두루 갖춘 지성인 박광익 광주문화원 고문을 찾았다. [편집자주]

▶▶ 학창시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하숙생 인생이 되셨는지.

서울로 조기유학을 가서 하숙하면서 경동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광주에서 두 번째로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했고 대학에서 청록과 시인 박두진은 사님으로부터 시를 배우고 1960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에 당선되어 일찍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당대의 석학을 연대교수 김은경 국어학 박사와 외솔 최현배 선생 밑에서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행운이지요!

▶▶ 60년대는 낭만과 혁명의 시대였는데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내셨는지.

60년 4.19혁명 당시 문과대 문예부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유행시킨 4.19구호 "독재정권 물러가라"를 만들었지요. 당시 연대 이대 고대 속대 학생



들과 문예동인을 만들어 활동하다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천거로 대학당시 전남일보에 시를 기고했고 졸업 후 "학사시인협회"를 구성하여 문인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후 연합통신에서 6개월간 기자생활을 하다 적성에 안 맞아 시작하고 부산 여고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한성여대(전 서라벌대학), 부산여대, 동아대, 부산대에서 교수직을 맡아 왔고 시와 고

전 분야 중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서지학이라는 문자와 책의 역사에 관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교수들도 사교육에서 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편입학습서 "신세계 대학편입논술"(1977년 중앙 편집사 발간)을 저술하여 30만부라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돈과 명성을 한꺼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 이후에도 지성의 지경을 넓히며 언론과 학계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에서 평론과 수상록에 관한 칼럼을 써 왔습니다.

1999년 은퇴하여 고향인 광주에 낙향하여 은거생활을 하면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와 사람"이라는 잡지의 주간과 편집고문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2001년부터 문화원에서 고문을 맡아 "광주문화"에 집필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결혼식 주례를 섭니다.

▶▶ 광주문화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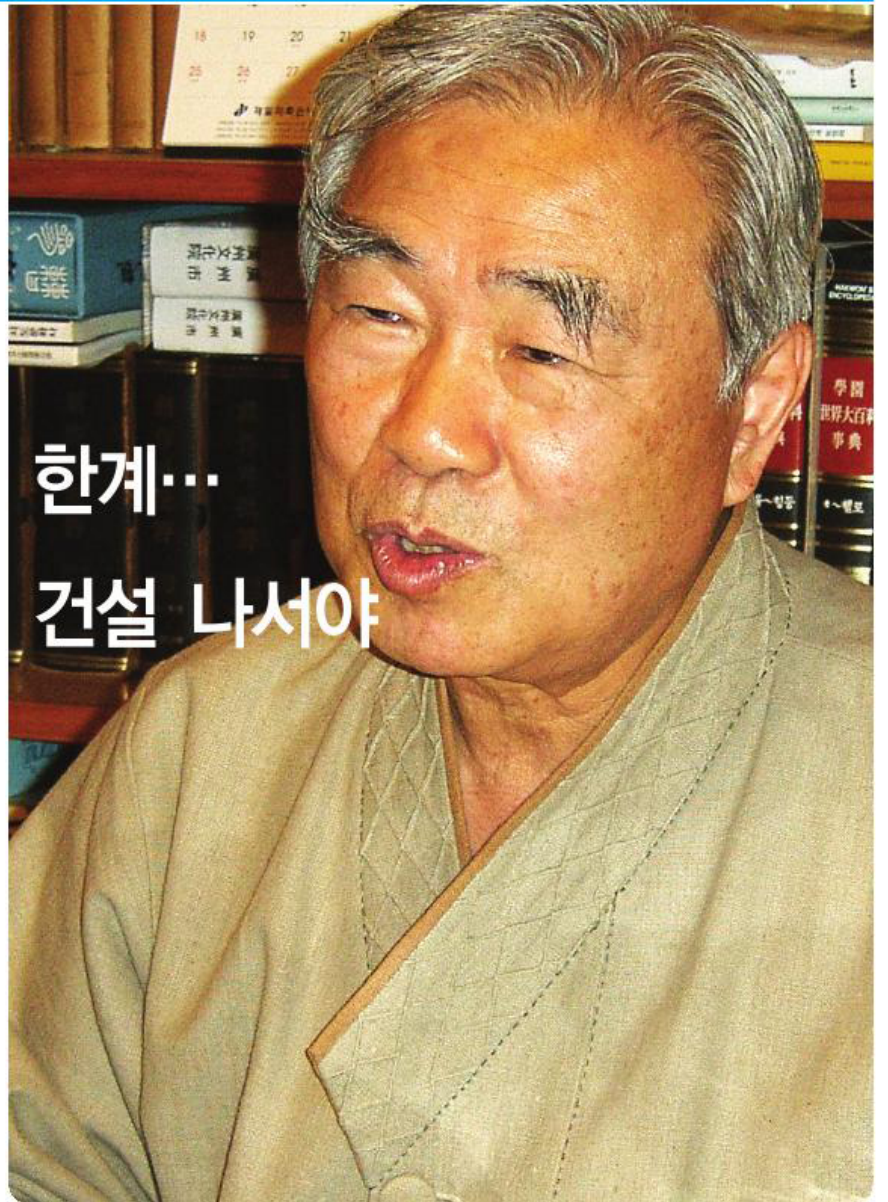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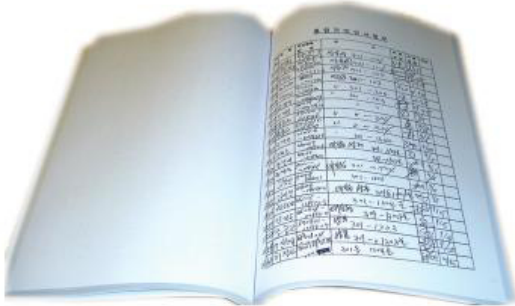
광주에서 문화원의 주체가 문화인이나 예술인이 아니고 정치적인 색깔이 짙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성이 많습니다. 문화인에 의한 기획과 운영이 되어야 광주문화와 예술이 성숙해지는데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하지요. 노령 층의 문화원이 과거 지향적인 출판이나 행사 위주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감히 젊은 세대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 문화 예술의 창조에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 어떻게 문화와 콘텐츠가 충만한 창조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우선 광주가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먹거리나 생필품이 자급자족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 Interview



## 광주만의 자급자족 한계... 새로운 지역공동체 건설 나서야

으로나 지역 예술과 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입니다. 즉 영어의 CULTURE가 문화의 정신을 의미하는 데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의 콘텐츠가 생산되어 광주 내에서 자급적으로 순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급자족은 현재의 광주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광주-성남-하남이 대통합으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지역을 통째로 흔드는 지역변동인 대통합문제에 대한 견해는.  
(박 고문은 "행정구역 통합 광주시민 추진위"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잠시 눈을 감은 선생의 비장한 모습과 긴장감이 서재에 휘몰아 장단처럼 광광하게 감아 들고 있다.)  
대통합은 단순히 지역통합을 넘어 과거의 광주 정신세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성남과 하남이 경제적으로는 광주보다 월등하지만 과거의 전통이나 문화가 남아 있나요?  
백자의 미와 왕실 도자기, 실학의 학문, 천주교의 발산지, 해공 신익희 선생의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가치가 광주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창조가치이며 미래 가치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호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만으로 이러한 문화와 정신적인 가치를 자급할

수 없고 팔당과 물 자원을 가 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합이 되어야 큰 광주의 자신인 정신과 물질을 자급적으로 생산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대통합시가 이니셔티브를 잡으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팔당에 퇴적층을 준설하여 살아있는 물로 만들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광주가 "개발제한구역"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에 개발효과가 극대화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합니다. 대통합이 되면 5호선 전철이 하남에서 광주로 연결되고 분당까지 순환되어 인구의 유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남보다 큰 대학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중앙대 같은 명문대도 광주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방지되고 친환경적이고 자급자족형인 도시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창조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광주가 있게 됩니다.

▶▶ 신문지상에 서명 운동을 할 때 전국적으로 있었던 이 정치권이나 지지체에 의한 압력이나 방해가 있었는지.  
(잠시 긴 침묵이 서재를 흐른다. 광주의 맥박이 가빠지고 있다.)  
처음에 11명이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모처의 압력으로 마지막 5명이 남았다. 오프의 젊은 시의원은 처음에 동참하다 빠지고 혼자서 서명을 받

으려 다행이지만 접수도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진보정당들의 동참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 시의원만 개인적인 결단을내리고 끝까지 서명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느 당 지역위원장을 만나 이야기하니 "통합은 정치적 쇼이다"라고 한마디로 깔아 뭉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통합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부터 발상된 것이네요.  
공동대표 5명(김 영훈 시의원, 이 우경 전시의장, 이 주호 시민연대 공동대표, 장 운희 전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뚝뚝 뭉쳐 자기 돈을 써가며 짧은 시간에 만 명이 가까운 서명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여당의 순망치한의 관계인 두 정치인의 방해로 시민들이 냉랭했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적극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 대통합론자들이 광주의 토지를 소유한 유지들이 많으며 그들의 개발이익 때문에 통합을 주장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데.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지방자치 단체의 토착화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시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광활한 오폐수 도적을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있고 친환경 IT나 BT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획과 배분 조정이 정치의 몫입니다.  
광주 유지들은 오히려 통합에 반대합니다. 광주 유지들은 개발이익보다 통합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을 두려워하여 통합을 반대합니다.

▲ 박광익 수석대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당위성에 대해 말한다.

현장인터뷰 황면기 성남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

# ‘준비된 창업’이 성공창업의 지름길

## 꼼꼼한 사업계획서 작성...시행 착오 최대한 줄여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성공창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된 창업을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성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만난 황면기 소장은 지난 9월 실시했던 하반기 경영개선자금 지원활동을 떠올리며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의 여부가 사업 성공으로 가는 첩경임을 거듭 강조했다.

황 소장은 “성남과 광주, 하남의 많은 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에 나서지만 개업 후 3년 사이에 많이 문을 닫게 된다”며 “이왕 시작한 사업을 성공시키고 실패를 줄이려면 많은 경험과 전문성, 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영세상인이나 예비 창업자를 위해 특화한 전문기관으로 창업준비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센터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청 자금과 경기도 자금 등 크게 두가지 자금지원 활동을 한다. 특히 경기도 자금은 인도 ‘그라나은행’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경기도가 도내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한 제도이다.

하반기 경영개선자금은 전국적으로 2천600억원이 3일만에 소진된 가운데 성남소상공인지원센터는 135억원 지원실적을 올렸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센터에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한다. 지난 9월에도 하반기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센터를 가득 메워 밤늦게까지 추천서 작업을 이뤄졌다.

황 소장은 “한 분이라도 더 추천서를 잘 받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지만 개인별 보증정도도 미흡하거나 신용이 양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도움이 안 돼 결국 발길을 돌리는 분들을 보면 내 입처럼 안타깝다”며 아쉬워했다. 이 경우 황 소장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소액특례보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안내한다고 한다.

황 소장은 자기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동이체를 해 놔는데 깜박 잊고 몇일 연체된다면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체크하게 되며 본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업력을 키워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자기 자금비율이 70% 이상은 되어야 금융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물론이다.

황 소장은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 전후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상권분석, 창업세무 등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교육 수료자에게만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장을 떠날 수 없는 등 시간제약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e-러닝 센터’와 ‘소상공인 방송’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e-러닝은 인터넷 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교육 과정이 내실있게 구성됐다.

우선 공통과정에는 창업과정을 중심으로 업종분석과 아이템 선정, 고객관리 등 18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업종별 전문과정도 개설돼 있다. 음식, 슈퍼·체인, 이음, 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화훼의 8개 전문과정이 그것이다. 소상공인방송은 중기청과 소상공인지원원의 위탁을 받아 매일경제TV와 한국경제TV가 운영한다.

황 소장은 또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등 생활형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매출 부진 등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컨설팅 받고 싶다면 ‘지역업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라고 추천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 진흥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2500여명의 업종별 전문인력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기간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일반 컨설팅으로 3일 이내에 예비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예비진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화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수행과제와 기간에 따라 5~1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50~80만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신청자에게 인력풀 명단을 제공하고 신청자는 원하는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한 컨설턴트는 협약을 맺은 후 15시간 이상 자문을 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하면 신청자는 만족도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황 소장은 “이외에 지원센터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많은 제도와 개설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창업의 지름길이 열릴 수 있다”며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하고 창업 후 그것을 지침서로 활용하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항들을 피드백해 나간다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성남시 동유럽 시장개척단 ‘선전’

### 8개 업체452만불 수출계약 체결... 수출 교두보 확보

성남시는 '2009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452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주)네오러스, 다담미이크로(주) 등 8개 관내 업체로 구성된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러시아와 불가리아로 파견했다.

이들 시장개척단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인 러시아 모스크바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 엠프, 불꽃감지기, 손목시계 등 종합 물품 상담을 통해 총 80건, 452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스타일리쉬사의 손목시계는 패션감각과 가격 경쟁력에서 소피아 현지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수출 상담 현장에서 10만불(USD)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또 넥스디지털사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수신기와 다담미이크로사의 홈네트워크서버 등 IT 제품도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유럽과 중국 제품과 차별화돼 앞으로 성공적인 시장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 ‘우수’

### 지방공기업 2년 연속 우수 기업 선정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이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국 2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으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고객우선 경영을 경영철학으로 공단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체계를 구성하는 등 경영중 리더십, 조직 및 인사,재무관리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시설·환경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 정책준수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신현갑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기업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고 고객행복을 실현하는 일 등공기업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성남·광주·하남 통합 '찬·반 엇갈려'

## 민주·민노·시민단체 강력 '반발' 성남·광주·하남 '환영'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이 10일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반수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광주시, 하남시는 찬성 입장이며 따라서 10일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자율적인 통합시 추진방침에도 반대 입장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82.4%가 찬성한 광주시는 11일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구역 통합으로 광주시의 역사성·정체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행안부의 발표에 의하면 시민의 54%가 찬성 한 것이지만 무응답을 넣고 산정하면 50% 만이라는 논란이 휩싸이며 '졸속통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이 발표된 후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와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이재명 부대변인은 통합여론조사를 조작한 신(新)사사오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1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의회 신청사 1층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 통합 찬성

통합찬성측은 성남·광주·하남지역이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정서적으로 동일성과 생활 문화권이 같은 지역으로 통합은 시대적인 요구라는 주장이다.

또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전체로서의 국가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시대적인 권역변화라는 입장이다.

또, 각 지자체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남은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며 행정 입안에 있어서 광역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시간 경쟁력으로 제

고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시의 현안사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완화, 수질보전특별 종합대책지역 내 시설입지 허용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규제개선 및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 반대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애당초 여론조사 결과 통합찬성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50% 이상 찬성이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어긋나므로 원천적으로 통합 추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과 그렇기도 하지만 자율적인 통합을 위해 토론 등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11일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시민의 50% 이상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었는데 행안부 조

름·무응답자를 포함하면 성남시민 찬성비율은 50%에 미달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통합은 절대 반대하며 통합시 설치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명확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까지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와 '관계졸속통합지지성남시민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한 관계 입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무효투표로 하지 않을 경우 찬성이 49.3%로 성남의 민의는 통합 반대"라며 "졸속통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따라서 "통합시 추진 과정상에 빚어진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자율적인 통합을 위해 토론과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통합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통합 대상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의 견수령 과정을 거친 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달 말 통합지역을 최종 결정한다.

통합자치단체는 내년 2월 개 통합설치법 제정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하자

행정안전부에 건의서 제출...3개시 통합 새국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행정구역 여론조사 결과 성남·광주·하남시가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성남시는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 행안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3개시 통합과 관련,이대엽 시장은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은 더 이상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성남시가 국가정책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세계 4대 전기자동차 강국 꿈꾼다"

## 전자부품연구원, '지능형그린자동차 기술 및 산업동향' 세미나

초고유가가 반복 심화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가속 그리고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라는 최우선의 과제 앞에 자동차 산업은 '지능형 그린자동차'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닛산차 카를로스 곤 사장은 향후 자동차 산업에 신성장동력은 전기차이며 리더는 오로지 하나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은 최첨단의 IT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세계 4대 전기자동차 강국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등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

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야흐로 자동차 산업은 IT와 그린 기술을 융합해 자동주행,주차, 도로안내 등은 물론 차량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트렌드를 이끄는 결합된 융합IT기술로 거듭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원장 최광락·KEIT)은 29일 오후 대강당에서 '지능형그린자동차 기술 및 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KEIT 등 연구원 및 교수 그리고 실무자 등이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지식경제부 남궁재용 사무관은 정부의 '그린자동차 정책동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연비향상을 위한 스마트 그린카와 부품업체 지원인 그린 네트워킹 구축 그리고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황학인 KEIT 단장은 KEIT의 '지능형 자동차전장부품사업단'에 대한 소개와 자동차 전자화 추세 및 각종 센서 등 관련기술 개발 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더 나아가 박규호 KEIT 센터장은 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더 센서에 대한

기술에 대해 "유럽/북미의 경우, 레이더를 이용한 충돌방지 및 경고 기능에 대한 차량 평가 등급화를 추진 중"이며 "미래형 안전운전을 위해 카메라 기반의 영상센서와 융합을 통해 센서 융합 IT개발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연구원 황상규 실장은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이어 전기차(KEV)의 활성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전기차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도현 센터장의 '지능형 안전 및 사시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 동향, 현대모비스 이정표 차장의 '자동차용 반도체 기술동향, 조영범 건국대 교수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네트워크 기술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쟁점인터뷰 최현백 민주당 분당갑 판교대책위원장

# 성남·광주·하남 통합 “시대의 흐름 거역하는 것”

## 역사적 동질성 희박... 단순한 행정통합 시너지 효과 전무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성남·광주·하남을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광주시, 하남시와는 달리 성남시 여론조사 결과는 54%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졸속통합추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최현백 민주당 판교대책위원장을 만나 통합시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졸속인 이유는 무엇인가.

성남은 현재, 시장, 국회의원은 모두 한나라당이고 견제해야 할 성남시의회마저도 한나라당 일색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이대엽 성남시장은 3개시 통합을 올해 안에 급행으로 끝내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통합시는 광역시가 아닌 기초단체 통합일 뿐이고, 통합시 청사위치나 명칭은 통합후 결정예정이다. 통합후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은 명약관화 하다. 더구나 주민투표 없이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최근 이대엽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옛 광주군에 뿌리를 둔 원주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문화적, 역사적 공통점이 없으며 공동체 의식이나 정체성도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생활근거지도 달라 성남, 하남은 서울을 축으로 생활해 굳이 성남, 하남 주민이 광주로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

▶▶ 100만명 넘는 통합시가 되면 광역시가 되지 않겠는가.

성남은 현재도 100만 가까운 인구다. 성남시의 지표인 2020 계획에 의하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115만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광역시급'이라는 단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 “학교부족”으로 인해 광주시의 학교로 통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성남시에서 발생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

학기술부의 기준치(학급당 35명 기준)를 훨씬 초과하는 학교가 다수이고, 2007년 기준으로 성남시 과밀학교는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34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도 학교는 부족한 상황으로 성남의 아이들이 광주로 통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판교입주가 끝나는 2011년도에는 5천여억원이 감소된 1조8,829억원의 세입이 예상된다는데.

성남시가 발간한 '비전 2020 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 한번만 세입이 줄어들고 재정(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최소 2조7천억원에서 최대 3조5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입과 인구가 줄어든다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통합찬성리를 강요하는 억지논리다.

▶▶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듯이 통합시를 찬성하는 주민도 많지 않은가.

성남시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홍식 하남시장의 전격 통합선언 이후 '통합시 추진 홍보계획'을 통해 홍보물 2만매, 리후렛 1만매, 버스전광판 광고, 비전성남 등을 동원한 찬성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현수막 문구까지 정해지면서 관련단체를 동원하여 홍보종류, 게시시간 등의 실적 보고를 하게했다. 당연히 주민자율이 아닌 공무원 위주의 통합이 되다보니, 여론조사도 겨우 50%를 턱걸이 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9%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임의로 사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홍식 하남시장의 전격 통합선언 이후 '통합시 추진 홍보계획'을 통해 홍보물 2만매, 리후렛 1만매, 버스전광판 광고, 비전성남 등을 동원한 찬성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에서 독립된 광역시가 아닌 단순 통합되면 예산은 그대로다. 분시까지 재개발 예산도 부족해 재개발이 지연되는데, 하남 광주 개발까지 성남(분당)시민 세금으로 하지는 것이다. 졸속통합으로 성남(분당) 주민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재정자립도에서 성남은 74%, 광주·하남은 49%·58%다. 1인당 예산은 성남이 240만원이지만 광주는 160만원에 불과하다. 통합후 1인당 예산은 대폭 줄어 들고, 성남(분당)시민의 생활수준은 턱없이 낮아지게 된다. 결국 시민 1인당 예산과 행정서비스는 하향평준화 되는 것이다.

▶▶ 통합시의 주민 행정서

### 디자인세상 인터플러스

##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싼 가격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저가형 제작물을 만든 후 후회하신 적이 없었는지요?

인터플러스에서 저렴하면서도 퀄리티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 유지보수  
기본형 100만원(일반홍보), 일반형, 맞춤형까지

카드록 / 팜플렛  
기본형 150만원(칼라 8페이지, SW200g, 1,000부 기준) ~ 맞춤형까지

그래픽디자인  
CI / BI, 포스터, 3D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r-plus.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Tel.070-7649-5136 HP.011-381-2136

# “이젠 갖다대지 않고 그냥 열어요”

## RFID 기술로 세계시장 ‘도전장’ 수출시장 개척에 ‘총력’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에서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소영 사장은 요즘 스트레스 하나를 줄였다. 두달 전 박씨는 사무실 스마트키를 집에 두고 와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이제는 박씨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 스마트 키를 갖다 대지 않아도 문이 그냥 열린다. 핸드백 속 지갑에 넣어 둔 스마트 키가 박 사장이 주인임을 이미 사무실 문에 부착된 판독기와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이 스마트 키는 박씨가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거나 자동차 원격시동 리모콘을 눌러야 하는 수고까지 덜어준다.

나이 때문인지 머릿속 지우개가 숫자를 지우 지워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박씨는 이 스마트 키가 주는 편리함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 스마트 키는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롬테크(주)가 RFID(전자태그) 특허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KAIO’.

“KAIO는 사무실, 자동차, 집 등 도 어류와 관련 있는 것은 모두 온오프 제어할 수 있는 액티브 타입의 스마

트 키입니다.”

임형준 롬테크 기술총괄 상무이사는 17일 자사가 3년 전 개발해 업그레이드해 온 ‘KAIO(Key All in One)’가 기존 제품에 비해 기능성과 편의성, 확장성, 가격 면에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KAIO가 가장 눈을 사로잡는 기술은 액티브 타입이라는 점이다. 기존 RFID 제품이 스마트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판독기에 갖다 대는 패시브(수동형) 타입인 반면, 이 제품은 액티브(능동형) 타입으로 가방이나 지갑, 주머니 속에 휴대만 하고 있어도 판독기의 버튼을 터치하면 문이 열린다.

특히 KAIO는 출입통제 기능을 갖고 있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과 출입 시간을 원격 제어하거나 저장된 정보에 맞는 인물만 출입시키는 원격제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본래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RFID 기술에 데이터 통신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확장성을 넓힌 것이다.

수출에 주력하는 롬테크는 각 나라



임형준 이사는 “KAIO는 기존 제품에 없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가격은 저렴하여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최근 제품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구매자가 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등의 업체와는 구체적인 수출상담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지난 14일 2009 성남우수상품박람회에 참가한 롬테크는 10여곳의 해외 바이어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대만의 2개 회사는 투자의사를 현장에서 밝혔고 미국과 아프리카, 유럽에 수출하는 영국 회사들은 LED 제품의 샘플을 요청했다. 미국 바이어는 아예 RFID 제품을 개발해 줄 것을 의뢰하기도 했다.

마다 원하는 색깔이 달라 KAIO의 디자인을 세가지 톤으로 차별화했다. 이같은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 때문에 별도의 기기 구축없이 장착이 가능하게돼 호텔에서의 수요가 크다. 스마트 키는 납성용과 여성용, 어린이용 등으로 차별화해 휴대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췄다.

지난 1996년 미국 삼테크사의 한국 대리점으로 시작한 롬테크(주)는 LED와 RFID 관련 특허를 7개 보유할 정도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또한 KAIO 외에 각종 위치인식 기술, 미야방지 기술을 구현한 제품들로까지 상품군을 확산하고 있는 중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눔봉사단 창단

###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신뢰받는 으뜸 공기업 실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이지송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LH 나눔봉사단 창단식을 갖고 LH 고유의 사회공헌 활동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 비전을 선포했다.

LH는 지난 10월 1일 통합공사 출범과 동시에 사회공헌 포어로 ‘사랑나눔 행복채움(Love & Happiness)’, 슬로건으로 ‘사랑을 나눔수록 행복은 커집니다’를 정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LH는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공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한국토지공사의 ‘온누리 봉사단’과 대한주택공사의 ‘디딤돌 봉사단’을 통합한 LH 나눔봉사단을 설립, 창단식을 가졌다.

LH 나눔봉사단은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조직일체감 형성을 목표로 이지송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동참했다.

이날 창단식에서 LH는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신뢰받는 으뜸 공기업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추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실천 등의 4개 항목의 비전을 선포했다.

LH 나눔봉사단은 창단 후 첫 공식 활동으로 창단식 개최 당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에 연탄 3,000장을 이지송 봉사단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봉사단원이 직접 배달했다.

또한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연탄 20만장을 기부, 다음달 4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계층에 직접 배달할 계획이다.

이지송 사장은 “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봉사 활동에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 참신한 사업아이템 모십니다

### 동서울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동서울대학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조용무)가 제30차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목적과 아이템이 ‘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2002-24호)에 속하는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지닌 성장성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의 중소, 벤처 기업이다.

특히, 바이오센서, LAP-ON-CHIP 기술 관련 등 첨단사업 분야와 임베디드, 디자인, PCB 관련업체를 우대하며 동서울대학과 산학 협력이 가능한 기업이면 더욱 환영한다.

심사를 통과해 입주하게 되면 저렴하고 편리한 입주실 제공과 함께

전화회선 T3(45Mbps) 3~5회선이 무료 제공되며 부대시설인 공용기자재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샤워실, 휴게실, 상설전시장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벤처기업 지정이 용이하며 임베디드센터를 통한 저렴한 시제품 제작도 가능하다.

입주신청기간은 11부터 20일까지이며 12월 1일부터 11일에 입주하게 된다.

한편, 동서울대학은 교육이념인 벤처정신을 구현하고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신기술창업자를 발굴·육성해 벤처기업을 창출하고자 1999년에 개소했다.

신구대학 산학협력단 CT센터(Contents Technology Center)는 콘텐츠 제작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관련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콘텐츠 생산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올해 10월 개소 2주년을 맞은 CT센터는 신구대학 구성원의 콘텐츠 생산 능력 향상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 기업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구대학 CT센터는 콘텐츠 생산을 위한 첨단기자재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추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기업 간의 시설공동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개소 2주년을 맞아 CT센터 이창경(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센터장을 만나 그간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현장사람들** 이창경 신구대학 산학협력단 CT센터장



# “기업과 대학의 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

##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주력...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절실



▶ 개소 2주년을 맞은 소감은..

CT센터가 설립된 목표는 오늘날 전문인 교육에 있어서 실무적인 교육과 산학 연계교육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 전문인 교육이 나가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방향성에 기인한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와 콘텐츠관련 업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을 수행해 왔다.

2년이면 짧은 역사지만 좀 더 내실을 가지고 성남의 많은 업체들에게 필요로 하는 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것을 확충해 지역산업과 대학의 교육, 연구가 만나는 거점으로 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업체들이 방문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듯이 2년이라는 시간은 CT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년 동안이 준비 기간이었다면 2주년을 계기로 앞으로의 기간은 상황파악과 의식의 공유 단계를 뛰어 넘어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생산품이 나올 수 있고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 CT센터의 그간 활동은.

2007년 사업으로 '콘텐츠 중소기업 제작자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프리랜서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콘텐츠 중소기업 제작자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외부전문가를 초청, 문화원형과 콘텐츠소재 개발, 게임콘텐츠 개발 사례 분석 등을 교육했으며 '콘텐츠 프리랜서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콘텐츠제작을 위한 기초 편집에서부

터 비디오 효과 및 모션 효과에 걸쳐 전반적인 제작기법을 교육했다. 또한 2007년 12월 '뉴미디어 패러다임과 문화콘텐츠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산관학연세미나를 개최했다.

2008년도는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영상콘텐츠 촬영 및 편집 기법'이라는 중소기업 제작자 프로그램과 웹 콘텐츠 디자인의 실제 리는 콘텐츠 프리랜서 단기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12월 '남한산성 콘텐츠 디자인의 방법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외에도 이러닝(e-learning)을 위한 콘텐츠가 작년에만 18개가 제작돼 교육에 활용됐으며 올해는 '뉴미디어 취업스쿨'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했다.

또한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국인 컴퓨터 교육과 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콘텐츠학과,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그래픽아츠미디어과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과정을 수행하는 '팀프로젝트' 공동 수업도 추진했다.

▶ CT센터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남한산성 스토리텔링(이야기가 있는 걷는 길) 코스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CT센터가 중심이 돼 수행하고 있다. 9월에서 시작해 12월 초에 마무리되는 작업으로 남한산성에 5개 코스를 만들어 코스마다 중간 중간에 얹어 있는 전설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코스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남한산성을 그냥 돌아보고 내려오는 등반이 아니라 코스를 걸어가면서 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라든가 전설, 이야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더불어 한 코스 걷고 난 후의 운동량 등도 측정하여 연구한다.

CT센터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발굴뿐만 아니라 가치를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콘텐츠 사업화에 대한 생각은.

CT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학교와 기업들이 연합동아리 S-pro를 중심으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벗어나 좀 더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학

생, 기업,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관심과 투지도 필요하다. 투자는 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실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게임 등 성남시의 특성화 산업과 연계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해 대학의 자원이 교육에 바탕으로 실현해 나가면 전체적인 생산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009 뉴미디어 취업스쿨은.

올해 여름 처음으로 추진한 '뉴미디어 취업스쿨'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 준비 중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 제작실무' 과정과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과정을 개설해 미디어콘텐츠과 성주영 교수님과 사진영상미디어과 김종무 교수님이 교육해 주셨다. 관련업체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 취업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앞으로의 계획은.

교육이라는 것이 실질보다 이론에 치우쳐 재교육을 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해 왔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통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CT센터를 만들고 싶다.

또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 지역사회의 봉사도 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역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신구대학 CT센터 그러면 뭔가 이뤄지고 해결된다는 좋은 반응과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지역 내 기업에게 대학이 봉사할 수 있고 연구역량 등을 지원해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대학과 지자체의 투자를 통해 기업도 살아나가고 대학도 지역기업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되길 바란다.

이러한 일들은 실적위주의 일보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다. 신구대학의 입장에서 신구대의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수 기자

논설주간 정내하

# 헬기를 타고 대한민국 교육상공을 날다



참 잘도 했다!  
몇 십년간 보수파의 목구멍에 걸려 있던 날카로운 생선가시를 토해냈다. 아니 대한민국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수능 성적 발표 말이다.

그것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통한 소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보 진영이 그렇게 쉬쉬했던 교육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세상이 여기저기 난리가 난 것이다. 그 파장이 쓰나미의 일회성의 강타가 아니고 교육의 성골지역판과 변두리 지역판, 진보판과 보수판, 교육판과 정치판의 구조가 쿵 부딪치며 대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헬기를 타고 대한민국 상공을 날아서 온다.

전국 곳곳이 아우성이다. 교육자, 학부모, 교사, 학생, 정치인, 아니 전 국민의 여론이 부글부글 끓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통한 배설이 대박의 한 건을 올린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강남구 교육1번지와 전국 외고와 특목고 주변을 맴돌며 그 배설물을 즐기느라 으름 때며 너겅이가 빠져 있다. "오! 우리는 그동안 하이어나처럼 얼마나 사냥감의 주위를 맴돌았는가? 얼마나 기대했던 우리의 먹이 감인가!

아! 신선한 피 냄새! MB 정권의 전리품이여!" 그들의 탄성은 한국 사회에 음영의 여론을 길게 남기고 있다. 외대 폐지론으로 또 다시 한국사회가 난리 법석이다.

진보 진영의 상공이다. 필필 끓는 분노가 헬기의 날개까지 치솟아 부딪히며 투투둑 소리를 낸다. 보수의 신선한 사냥감을 그들은 똥이라고 부른다. 그 똥내가 교육계와 대한민국 전체가 그 똥내로 진동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아니 한국사회를 출서기 사키고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제 보수층의 숙원이었던 고등 학교 서열이 일렬행대로 "앞으로나

란히"를 하고 있다. 상공에서 보아도 성적 100위안 최상위 그룹의 외고, 특목고와 강남고의 우수학생들의 반쪽이는 자신감과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된 아기가 당당하다.

"공부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전략이며 전술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신으로부터 공부의 신탁을 받고 태어난 우리는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백 기사이다. 우리 뒤에는 보수층의 전차 군단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

위장전입, 팡투기 각종편법에 의로 부자가 된 마마들이 뒤에 떡 버티고 있다.

학교의 선배들은 사법고시 등 고시를 독차지하고 두터운 인맥의 장벽을 형성해 주고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나 태어나 이 강산에 살면서 돈 걱정 한번 해 본 적 없다.

모든 문제는 우리 마마상이 처리 해주었으니까....."

그들을 응원 나온 마마들의 링크 코트와 보석과 루이비통 명품 가방이 잘 어울린다.

주변 주차장에 있는 벤츠, BMW 등 외제차가 주인 도련님을 기다리는 머슴처럼 빠기듯이 서있다.

성적순위 100위 학교 안의 행진이 사관생도 분열식처럼 위풍당당하더니, 100대 이하 학교(2등급 상위 11%이내)의 학생들의 얼굴에 근심과 불안감이 보인다. "그래도 지방 학교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열심히 공부했건만 공신인 외고 특목고 강남고 학생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대학에 진학해도 이미 인간의 진골 성골이 나누어져 있는 데 이들과 당당히 어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 수능성적 발표 전에는 그래도 자신감 있고 당당한 내가 왜?....."

학부모들도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타고 온 그랜저, 소나타, RV자동차가 눈에 보인다.

중산층에서도 상층에 속한 자들이다. 3등급(전체 학생의 11%)이하 서울의 변두리와 지방 학교들은 학교장, 교사, 학생 모두가 실망과 낙담으로 얼굴이 잿빛이다. 행진에 맞추어 줄을 서있는 학생들도 거의 없다.

행진을 이미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학생, 짐든 학생, 나무 뒤에 숨어 담배를 피는 학생들....."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갈 수가 없다. 타워 팰리스의 고층 빌딩속 부모와

내 아버비의 유전인자가 다르고

장후왕상의 씨가 따로 없다지만 초딩 때부터 과외나 명문학원에 다니고 중학시절 이미 선형학습으로 중무장한 강남 남들과 싸워 우째 이긴단 말인가? 그래 '현자들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던가? 수능성적발표에 빨리 공부를 포기할 수 있어 참 좋다. 누군가를 잘랐다." 이들 수가 얼추 수백만 명이다.

합숙전쟁도 치루기전에 나오병이 된 이들 주변 지역의 초등생 중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학생의 89%를 이룬다.

서울시 변두리와 지방의 학부모들이 운집한 광장에는 어두운 얼굴과 핏발서린 눈에는 분노와 좌절이 서려있다."이 녀의 학교는 무엇을 했단가? 위째 이 녀의 학교 선생님들은 이 따위 순위가 나오도록 빗하고 자빠졌단가? 오매 환장했는 거....." 그들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마음속 죽창을 준비한다.

헬기 상공에서 바라본 중학생 거주 지역도 파장이 인다.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이 중딩 학부모들의 의식을 강타한다. "그래 떠나야 산다. 내 새끼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 외고 주변이나 강남 방향으로 대이동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OK의 목장의 결투보다 빠른 총잡이의 솜씨가 필요하다. 남보다 빠른 이사가 해결책이다.

대한민국은 카오스이다. 헬기의 방향을 바꿔 초등학교 교육현장으로 날아서 간다. 아직 초딩 동네는 여유가 있지만 엄마들은 길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들아! 말아! 엄마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너희를 학원에 보내고 과외선생을 대 주마! 엄마 일 나간다." 엄마의 모정이다! 학원비등 사교육의 비용을 한국 미시족의 사회적 진출을 한층 활성화시켜 주고 있다. 아파트 대출 상환과 사교육비용에 미시족 여성들의 허리가 개미처럼 휘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잔혹사이다. 헬기에서 바라본 교육의 지형의 변화는 학교 서열화는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간에 위화감과 과열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자유경제 시대 계층 간 신분의 수직상승이 어렵고 학습능력도 재력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귀족학교 서민학교 머슴학교로 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데 대한민국은 없다.

"잠의력, 사교력 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요." 어느 성공적인 자율고 교장의 주장이다. 다양성과 수월성을 주창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시행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교육계와 정치인들이 소통하고 합의할 구성체가 필요하다. 어느 대학 총장의 지론인 "공부해서 남 주라"라는 명언이 떠오른다. 대학의 목적이다. 그 목적 안에서 청소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헬기에서 바라본 한국 교육의 현장 기상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매우 흐림 날씨이다.



## 광주시 미도요, 장학금 전달

광주시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구 대표는 시장실에서 조여동 시장을 면담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발굴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탁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초월읍 대성령리에 소재한 미도요는 전통도예를 만드는 요장으로 매년 일본 동경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한국의 도자와 차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 미도요 구성회 대표는 11일 오후 광주시 미도요 구성회 대표는 11일 오후 광주시 미도요 구성회 대표

## 광주고 연극반, 기량 뽐낸다

제13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출전... '비산 사과의 맛' 공연

광주시 광주고등학교 연극반이 오는 21일 예술의전당 내 자유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 출전한다. 한국연극협회와 예술의전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는 청소년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성과 문화적 소양을 길러 주기 위한 행사이다.

# 뉴스데이

news.day.or.kr

발행·편집인: 김광란

부회장/논설주간: 정내하

편집장: 모동희

등록일: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경기 다09097

발행처: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평동 3417 영성빌딩5층

구독: 광고 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 뉴스데이

newsday.or.kr

디자인세상  
인터콤더스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3D/CI/BI  
카드록/팸플렛/가타 홍보물

제42호 | 발행일 : 2009. 12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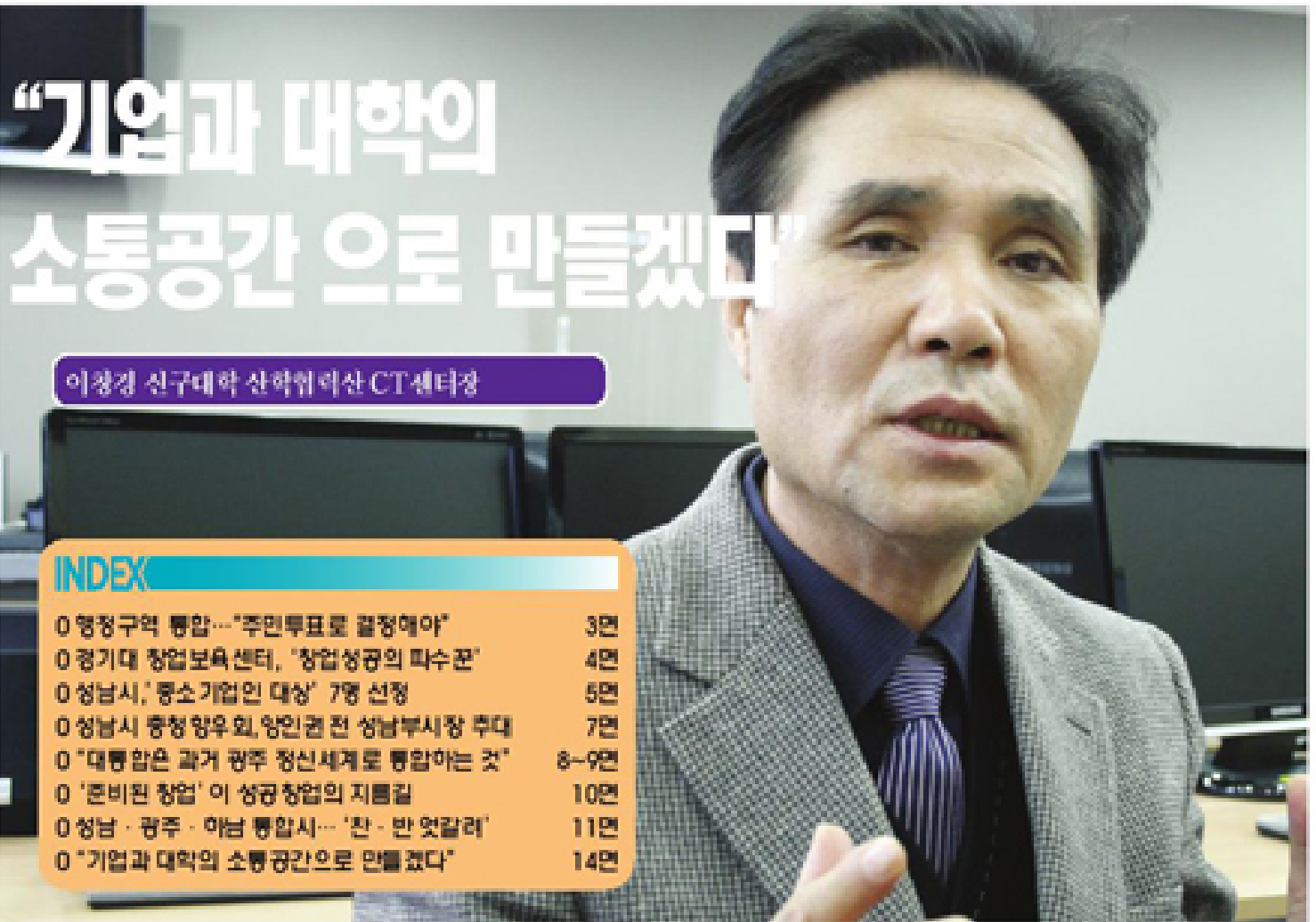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 “기업과 대학의 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

이장경 신구대학 산학협력산 CT센터장

### INDEX

0 행정구역 통합...“주민투표로 결정해야”	3면
0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창업성공의 필수조건”	4면
0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7명 선정	5면
0 성남시 흥청향우회,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 추대	7면
0 “대통합은 과거 광주 정신세계로 통합하는 것”	8~9면
0 ‘준비된 창업’이 성공창업의 지름길	10면
0 성남·광주·야남 통합시... ‘찬·반 엇갈려’	11면
0 “기업과 대학의 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	14면



성남시

성남시

## 성남 시청사 및 의회 개청을 축하합니다.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3층을 시민공간으로 연중 개방합니다.

1. 대강당, 민생포럼실, 운영실
  2. 시민참여포럼실, 열린도서관, 문화강화실, 여성포럼실, 소책자제작·취급실포럼실 등
  3. 민생포럼실, 식당, 열린회의실 등
- 여의
- 공민·산책로, 휴게복수대, 문화체육관광, 문화강화실, 문화강화실, 문화강화실, 스포츠포럼실 등

